



## 힘든 세상 안심법문이 최고

### 범어사·도선사등 전국 고승초청법회 '풍성'

“마음 평(平)地)은 모든 종자를 머금어 축축한 비를 만나면 어김없이 싹튼다.”(마조록)  
가계부채 500조원, 신용불량자 4백만명.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이 돈 문제로 족쇄를 차고 있다. 세계 1위의 자살율, 2위의 사건발생율, 3위의 이혼율 등등.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를 추락시키고 있는 온갖 통계들이 시민들의 깊은 한숨을 자아내고 있는 요즘, 전국의 유명 사찰에서 고승 초청법회를 열어 중생들의 허전한 가슴을 감로법문(甘露法門)으로 채워주고 있다.  
남악회양 스님이 심지법문(心地法門)을 통해 마조도일 스님에게 깨달음의 기연을 만들어 주었듯이 시민들에게 큰스님들의 사자후를 전해주는 사찰들은 조계사, 범어사, 동화사, 도선사, 불광사, 법왕사 등 주로 도심에 위치한 이 사찰들은 민생파탄으로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쉬게 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여론이다.  
시민을 위한 안심법문과 더불어 수행법까지 덩어리 지도하는 대중법회를 준비중인 곳은 서울 불광사(02-420-3200), 불광사는 10월 4-10일 매일 오전 10시 큰스님 7인 초청법회와 연말까지 매달 셋째 일요일 선원장 담선(談禪)법회도 연다. 이와 함께 10월 2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수행법 특별강좌를 연다. 초청된 큰스님 7인은 지관(가산불교문화원장), 고산(쌍계사 주지), 정무(석남사 주지), 정련(내원정사 주지), 우통(학성선원 주지), 혜정(원로의원), 성수(황대선원 주지) 스님이며 선원장스님 3인은 현산(화엄사선원장), 지환(기본선원장), 무여(축서사 주지) 스님이다. 지홍(생활수행) 청전(절) 무심(사경) 정복(염

### 신계사 대웅전 11월 낙성식

금강산신계사 대웅전 낙성식이 11월 18일부터 20일 사이 봉행된다. 조계종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총재 법장·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추진위원회)는 9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또 “최현규(문화재수리기능공 제1521호) 씨를 대웅전 대목수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추진위원회는 8월 3일부터 25일 까지 실시한 신계사 2차 발굴조사 및 석탑해체 조사와 관련 “탑지를 조사한 결과 대웅전 남쪽에 방형(方形)의 부석(礫石)시설이 확인됐으며, 이는 일제강점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24일 까지 대웅전 1차 조립공사에 들어간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비구尼회 대표단이 현장을 방문해 원만 불사를 위한 기원법회를 열고, 복원공사 총괄 진행과 모연 등을 담당하는 현지 상주 스님도 10월 12일 경 파견한다. 남동우 기자

**산사의 가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다. 여름내 실핀 고추는 잘 익어 붉게 물들고, 파란 하늘은 자꾸만 높아진다. 수월 봉녕사 경내에서는 햇볕을 쬐러 나온 한아름의 고추가 상큼한 향기를 풍긴다. 이제 정말 가을입니다.  
수원=고영배 기자

### 부석사의 4계 우포에 담아



영주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우포집이 발간됐다.  
영주 부석우체국이 최근 발행한 ‘부석사 풍경 우포집’은 부석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풍경을 우포 속에 고스란히 옮겨 담았다. 우포집은 계절 당 5장씩 모두 20장으로, 부석사 총무원 스님이 직접 찍은 작품이다. 배지은 기자

**‘현대불교 10년’ PDF로 보세요**  
www.buddhanews.com

‘현대불교’ 창간호부터 최근 호까지 부다뉴스에서 지면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그간 발행한 모든 신문을 지면 그대로 볼 수 있는 PDF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확대했습니다.

- 현대불교PDF 보기
  - 부다뉴스 회원가입
  - 로그인
  - 초기화면 PDF 보기 클릭
  - 원하는 지면 선택
  - 원하는 페이지 선택
  - 확대 축소 기능 이용 열람
- 접수 : 우편 (110-170)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 by:park@buddhapia.com
- 문의전화: (02)722-4162
- ※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원고량: 200자 원고지 10매  
접수 마감: 9월 30일

**현대불교신문사**

■조계종 본사가 젊어지고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가 젊어지고 있다. 8월 30일 현승 스님이 총림인 해인사 자기 주지로 추천됨에 따라 24곳 중 5곳의 교구본사 주지 소임을 40대 스님들이 맡게 됐다. 이 ‘젊은 스님들’이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와 교감하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변화의 바람을 이끄는 젊은 리더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년 스님은 주지 취임 후 ‘오대산 천년 숲길 걷기 대회’ ‘산사영화제’ ‘단기출가학교’ 등을 개설, 일반인에게도 사찰문을 열었고, 월정사-상원사 도로 포장 불가를 전행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정년 스님 뿐 아니라 ‘가장 젊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또한 주지 진산사에서 화환을 받지 않고 모은 성금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 등에게 쌀과 김치를 전달했다. 국제어로서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해 경내에 영어화당을 개설, 요즘은 ‘영어삼매’에 빠져있다. 주지 진산식을 열지 않은 대신 불우이웃들에게 그 비용을 전달한 창계사 주지 원정 스님과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도 40대 주지다.  
동안계 절제기간이어서 공부중인 대중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이유로 주지 진산식조차 하지 않은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5천여명을 초청한 경로잔치로 주지 진산식을 대신한 선운사 주지 범어 스님,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 백양사 주지 명공 스님,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 또한 50대 초반의 ‘젊은 속’에 속한다.  
본사 주지들이 ‘젊어지는데’ 대해, 20년 전 40대에 부산 범어사 주지소임을 맡았던 흥교 스님은 “당시 젊다는 것을 무기로 교과서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경험이 많은 어른 스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대중과 함께 의논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동우 기자

**40대 주지 ‘변화의 새바람’ 기대**

월정사 정년, 범주사 도공, 해인사 현승, 쌍계사 원정, 봉선사 철안 스님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할’**

100만배 수행해봐  
정하다 죽은 사람 없으니 끝을 봐  
가짜절 100만배를 하고 나니...

그림 · 조태호

해인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삶은 꿀이 아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들려주는 대행 스님의 지혜의 말씀

23쇄

쉽고 명쾌한 대행 스님의 **‘첫날’ 인생 이야기**

때로는 아득막한 산허리를 돌아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지막한 목소리였다가 한순간에 폭포수 같은 사자후를 토해 내기도 한다. 대행스님은 안양의 한마음선원에 계신다. 그러나 어디고 계신다. 오로지 만 생명이 자성을 밝혀 대자유의 세계로 들게 하기 위해 포교와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행 스님 범어 | 해원 스님 역음 | 254쪽 | 9,000원

**스님 이야기**

법정·서암·명성·대오 스님 등 85명 수행자들의 일화를 모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 이야기’는 지목·효림·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배일을 걷고 보아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버린 담배꽂이와 휴지를 주웠던 지월 스님, 코피 나도록 얻어맞아도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로 진솔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 지목스님 외 지음 | 448쪽 | 12,000원

DISCUSSION ABOUT CHAN(ZEN) BUDDHISM

**禪 문밖에 나서다**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받아 쓰기!

중국 선사들의 선문(禪文)을 패치워크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禪, 문밖에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 동안 읽었던 책을,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된 천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처럼..... - 본문 중에서

■ 석해달 저 | 456쪽 | 14,000원